

광양시, 매화축제 기간 황금매화 증정 이벤트

3만원이상 결제 영수증 제시 총 3300만원 경품 18명 추첨

광양시가 매화축제 기간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민·관광객 누구나 사업장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축제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스폰서십으로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아이패드, LF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황금 매화 GET(겟)' 이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POSCO, 여수광양항만공사, 청매실농원, 농협중앙회, ㈜LF스퀘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이번 이벤트는 총 3300만원 규모로 18명에 행운을 선사할 계획이다.

응모 기간은 축제 폐막 다음날인 20일까지 숙박, 식당 등 사업장을 이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이면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축제장, 광양시청, 12개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축제장 응모함은 매화문화관과 종합상황실 인근 홍보부스 앞에 마련돼 있다.



광양시가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이벤트를 추진한다.

경품은 전남도와 그 외 관광객으로 구분해 1등(2명)에 500만원 상당 황금매화, 2등(2명)에 300만원 상당 황금매화,

3등(14명)에 100만원 상당 상품권 및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다.

당첨자 추첨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함께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하며 당첨자에 실시간 안내한다. 통화 불발 시 재선정한다.

김중호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장은 "4년 만에 개최된 제22회 광양매화축제 성공과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스폰서십 '황금매화 GET' 이벤트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만큼 남은 기간 적극 참여가 당첨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꽃채운 국화사랑회 참여자 모집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꽃채운 국화사랑회' 참여자를 오는 4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인 위주의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꽃채운국화사랑회' 창립총회를 개최 했으며 안익태 회장을 선임했다.

참여자는 기관단체 사전 예약제 등을 포함해 5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동으로 재배할 교육장을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교육(12회)도 진행한다.

사전예약제로 1구좌당 5만원으로 1~5구좌까지 접수받고 있다. 전시회 후 국화화분을 3~5개를 나눠주며 10월에 제3회 어울림한마당 행사와 함께 전시회를 갖는다.

문의는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구례군 구례읍 로터리길 9(061-781-2333))로 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여수시, 12월10일 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6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8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12월10일까지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에서 가격 상승분 80%를 차감한 금액으로 무기질비료를 구매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최근 3년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이며 신규 농업인이나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도 표준 시비량 등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8) 또는 지역농협 본점 또는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노고단 도로 통행 제한 전면 해제 구례군, 관광수요 증가 대응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 도로 통행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면 통행 제한 및 부분 해제를 시행했으나 최근 기후 변화 및 봄철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전면 해제했다.

당초 31일까지 제한 예정이었으나 낙석 방지 공사를 신속 추진함에 따라 산수유꽃 축제 이전 통해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도로 특성상 이상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통행 제한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완전 개방에도 5월 해빙기까지 점검을 통해 대응하고 노고단 일주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는 매년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천은사 주차장 입구~달궁삼거리 L=14km 구간에 전면·부분 통제를 해왔다. 구례=김상현 기자

해빙기 감염병 취약지 집중 방역 광양시, 해충 구제 등

광양시가 해충 구제와 감염병 발생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해빙기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이번 방역소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겨울철에도 정화조, 하수구 등에 모기 유충 동면 서식지가 많아짐에 따라 해빙기(3~4월) 동안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각종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쓰레기 배출지, 공중화장실, 인구 밀집지역, 공원 등에 분무 및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웅덩이 등에 친환경 약품을 살포하여 유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김진식 보건행정과장은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위생 해충 방제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집주변 빈 화분, 페타이어 등에 고여있는 물을 제거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방역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권역별 방역소독 전문업체를 선정해 9개 권역 52개 코스로 나누어 주 5회 이상 전문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공유재산 1만5000필지 실태조사 여수시, 2027년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상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5000필지다.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류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은 계약취소 등 행정조치와 무단점유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가 각종 위생 해충 구제와 감염병 발생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해빙기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방역소독을 벌였다.

광양시 제공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서 아트마켓 '말레장' 성황

목공예 제품 등 전시·판매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임울대 광장에서 아트마켓 말레장이 개최됐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말레장은 공예 작가들을 초청, 목공예 및 공예 우수성을 홍보하는 물론 장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 판매하는 아트마켓형 장터다.

말레장에는 직접 제작한 목공예 제품(도마·인형·생활용품) 등을 전시·판매했다.

외부 초청 작가들은 대나무공예, 가죽공예, 뜨개공예 등 수공예품들과 수제 쿠키와 빵, 장신구 만들기 체험 등을 선보였다.

위성을 장흥목공예협회장은 "다양한 분과모임 운영을 통해 수준높은 결과물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임울대 광장 일원에서 열린 아트마켓 말레장. 장흥군 제공

을 전시, 홍보 할 예정이다"며 "회원들의 판매까지 이뤄져 공예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목재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매월 둘째주마다 열

리는 말레장을 계절별로 다양한 제품과 먹거리를 준비해 다채롭게 확대 운영 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예장터 활성화 및 지역내 목재문화 보급 활동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출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여수문화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연도' 의미를 담은 '226명'으로 정계와 문화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20대에서 80대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

이 모였다.

이들은 △정책기획 △시민 활동 △대외홍보 △섬가꾸기 등 4개 분과별 실행과제를 수행하며, 시민역량을 결집할 민간 차원의 행사를 개최한다. 사전 불입을 위한 대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녘 대표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범시민준비위원회를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인 '섬, 바다, 미래'를 잇는 퍼포먼스에 이어 다함께(WITH)를 외치며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섬박람회 성공 추진을 위한 구심점으로 소통과 화합, 협력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